

[종합·해설]

“北 제재보다 회담 복귀 설득”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여론조사 ‘전효속’ 인준 45%

우리 국민은 대북정책의 중심으로 제재 조치보다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참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15~16일 실시한 정례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포괄적인 접근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대북정책의 중심을 제재에 무게를 두어야 하나, 유화책에 두어야 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47.7%가 ‘유화책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제재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이 ‘유화책(40.2%)’보다 ‘제재(48.4%)’를 선호한 반면, 열린우리당(57.3%) 대 29.1%, 민주당(54.5%) 대 31.3%, 민노당(61.6%) 대 28.7% 지지

층은 유화책을 강조했다.

또 전효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응답자의 25.9%는 ‘야당이 전효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인준해줘야 한다’, 18.9%는 ‘대통령이 사과한 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각각 답해, 44.8%가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5.6%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44.0%가 ‘자진 사퇴’를 요구해 ‘국회 처리’(대통령 사과 후 통과 21.6%+야당의 인준 협조 18.1%)를 선호한 응답(39.7%)보다 많았지만,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지지층은 ‘국회처리’에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이 동의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북 금융제재 해결 美·中과 긴밀 협력”

정부, 9·19 공동성명 1주년 성명

외교통상부는 18일 “북한은 미국의 금융조치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며, 9.19 공동성명 이행과 직결된 정치적 문제로서 방콕 델타 아시아(BDA) 문제 해결 이전에는 회담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주요 경과 및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내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 같이 분석하면서 “다만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의지는 계속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미국의 입장에 대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노력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그 틀 내에서 BDA 문제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9·19 공동성명 채택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회담 재개 지연 등 정체된 상황 타개를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입장에 언급, “일본은 6자회담 과정 및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포

괄적 이행에 대한 지지 입장을 기초로 회담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하고 러시아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미·북이 직접 접촉,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타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 아래 미국과 북한을 설득 중”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한이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문제들이 6자회담 재개 및 진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아래 미·중 등과의 협력 하에 BDA 문제 극복 및 회담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허리춤 굽히시죠



이종태 경제부 처장

지난주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영호남 여성CEO 경영혁신연수’ 현장을 찾았다.

경영혁신연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속 영호남지회 회원CEO들이 경영혁신과 경제교류를 위해 두 지역에서 돌아가며 개최기로 한 것이다. 그럼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대구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담양행사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전북, 대구·경북, 울산 등 4개지역 1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행사를 취재한 기자로서는 한 대구·경북지회 회원의 얘기를 떠올리면 지금도 씁스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회원은 “1년에 한번 열리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들이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면서 “광주·전남 회원들이 이처럼 휴대 받는 줄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전남도와 광주·전남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두 사람 뿐이었다. 단체장이 참석하는 자리라면 ‘눈도장 찍기’ 바쁜 공무원들도, 지역구 행사라면 초청장 없이도 달려오던 그 많은 정치인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지역의 모든 행사에 관계공무원들이 꼭 참석하라는 법은 없다. ‘얼굴 내밀기’라 하면 되레 불쌍사나를 때가 더 많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행사에 참석수령의 대구·경북 공무원들이 행사장을 찾아와 지역회원들에게 ‘애로가 뭐냐’ ‘지원해줄 것은 없느냐’며 묻는 모습을 보고 한없이 부러웠다는 광주회원의 얘기는 두 지역 공무원들의 평소 사고를 실감나게 웅변해준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임버처럼 부러웠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유치도, 사회간접비용 확충도, 지역제품 팔아주기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내 고장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인을 존경하는 풍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공무원들의 몫이다. 기업현장을 쫓아가 거러온 곳을 열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2년 전 보성군청 공무원들이 서울 인사동에서 좌판을 밟고 보성 특산물 판매를 팔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 있다. 체면을 내던지고 ‘장물뱅이’보다 더 요란한 몸짓으로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아 쓸쓸한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이 보다 감동적인 이벤트가 또 있을까?

공무원 ‘나리’들, 제발 허리 좀 굽히시죠. /jtlee@kwangju.co.kr



김근태 의장 주한대사 간담회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18일 낮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주한 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사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 남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김근태 의장, 글레브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연합뉴스

“北 6자 북귀의사 땀 北 회담 가능”

버시바우 “한미정상, 유엔총장 후보 潘외교 매우 긍정평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한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한다면 6자회담 이전이라도 북미 양자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초청으로 열린 미·일·중·러 4개국 주한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우리당 이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의 제재모자를

쓰고 있는 회담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우 대변인은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또다른 행동을 취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텐데...”라고 북한의 추가행동 가능성에 경계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참여정부, 장·차관급 인사 출신지역·학교 분석

영남 강세 호남 안배 뚜렷

전남 출신 58명 2위...출신교고는 광주일고가 3위

참여정부 출범 후 장·차관급 이상 정부직 기관장 381명을 분석한 결과, 출신 지역별로 전남은 경남에 이어 2위, 출신 고등학교별로 광주일고는 서울고와 경기고에 이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국회 행자위 소속 김경권(한나라당)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급 이상의 정부직 기관장들은 381명에 달했다.

이중 경남 출신 인사는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출신은 5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49명), 경북(45명), 전북(31명), 부산(20명) 순이었고 광주 출신은 7명으로 12위였다.

출신 고등학교별로는 전운철 감사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외교통상부 유영환 차관 등 32명을 배출한 서울고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고(31명)와 광주제일고(19명)가 뒤를 이었다. 이어 경북고(18명), 부산고(15명), 경남고

(14명), 전주고(14명), 경북고(13명) 순이었으며 광주고(10명)는 10위, 목포고(7명)는 12위, 순천고(4명)는 20위였다. 검정고시 출신도 4명이었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72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고려대 42명, 연세대 32명, 성균관대 17명, 육사 16명, 영남대 10명, 이화여대 10명 순이었다.

장·차관급 이상 정부직의 임명시 평균 연령은 56.6세였다. 고건, 이해찬, 한명숙 등 국무총리의 평균 연령은 62.0세였고, 장관은 56.0세, 장관급은 61.9세, 차관은 55.1세, 차관급은 55.9세였다. 이상희 전 방송위원장이 78세로 가장 많았던 기관장이었다.

381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14개월 24일 이었고, 41일 미만도 38명 (10%)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은 15개월 24일, 장관은 14개월 12일, 차관은 11개월 18일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able with 8 columns and 3 rows of court case information. Each cell contains case number, parties, lawyer, and court details.